

2019년 성모 승천 대축일 메시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의 승천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북녘 동포들에게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모님께 대한 공경과 사랑은 초기 교회부터 각별했습니다. 제2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는 1838년 12월 교황청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회 수호성인으로 청하했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은 1841년 8월 22일 이를 승인하셨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모진 박해와 갖은 어려움에도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1945년 성모 승천 대축일인 8월 15일,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이 성모님의 보살핌

의 결과라 믿으며 한국 교회의 성모 신심은 더욱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우리 인류와 연결해 준 위대한 공로자입니다. 성모님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모후’인 성모님께서는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의 간청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주시도록 청해주십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광복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순국선열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깁시다. 우리 민족의 독립뿐만 아니라 동양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투신하신 애국지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 요한 23세 교황은 1963년 발표한 회칙 ‘지상의 평화’를 통해 평화에 대해 인류 전체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상의 평화’는 모든 시대의 인류